

사회

막가는 폭로 무서운 온라인

“수술 불만” 비난글에 병원비 돌려줘
교육청·대학병원 등도 음해 시달려

포털 사이트와 각종 홈페이지, SNS 등 ‘온라인’이 스마트 생활의 영역으로 자리 잡았지만 일방적인 비난이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많아 온라인 문화 예절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는 지적이다.
광주시교육청은 홈페이지에 사실 근거가 없는 비난성 내용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하루에도 수차례 올라오자 지난해부터 담당직원을 뒤, 문제가 있는 내용의 글을 삭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내용의 글을 올리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와 함께 최근 전국적으로 여론을 들끓게 했던 일명 ‘채산당 임신부 폭행’ 사건은 한쪽 편의 의뢰가 인터넷 포털을 통해 빠른 속도로 유포되면서 ‘악화된 피해자’를 만든 대표적이 사례다. 이 사건은 임신부가 종업원과 사소한 다툼을 목하는 마음에 ‘음식점 종업원이 임신한(자신의)배를 걷어차다’는 주장을 유포하면서 시작됐지만, 경찰 조사 결과 임신부의 글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로 인해 이 음식점과 종업원은 네티즌들에게 실명까지 거론되면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지난해 광주경찰청에 접수된 민원사건의 70%는 사기죄 등의 재산 관련 사건인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경찰청은 전국 최초로 사기·횡령·배임죄 전담팀을 구성해 이들 사건의 수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기로 했다.
지난 29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총 2만1000여건의 고소(1만3326건)·고발(1942건)·진정·탄원(5792건)을 접수·처리했으며 이 가운데 사기·횡령·배임죄 등 재산과 관련한 민원사건이 1만4738건으로 전체의 70%(사기 66%, 횡령 3%, 배임 1%)를 차지했다.

“미꾸라지 사기범 꼼짝 마”

광주경찰, 횡령·배임죄 전담팀 운영

그러나 사기죄의 기소율도 송치율은 30.8%(1만676건 중 5290건)로 절도범(81.5%), 풍속범(80.6%), 강력범(66.6%), 폭력범(57.4%) 등보다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죄 등의 불기소율도 송치율은 60.7%

만676건 중 6475건)로, 혐의 없음 53.5%(3461건), ‘기소중지’ 43.8%(2838건), ‘공소권 없음’ 2.6%(169건) 순으로 나타났다.
즉 사기 사건의 2/3 이상이 사소한 다툼에서 시작해 피고소인의 심리적인 압박 등에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사기·횡령·배임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착수와 적극적인 검거활동을 전담하는 전문수사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피해자에 대해 법률구조공단과 연계,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급명령·소액심판 소송지원 등 실질적 피해회복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니원침 (8513) 김종두



“삼학소주 살린다” 노인 상대 8억 투자 사기
전직 의원·연예인 동원 영광서 가짜 기공식... 일당 거머
박정희 정권의 최대 정적이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정치자금을 댔다는 설에 휘말리다 몰락한 것으로 알려진 ‘삼학소주’ 노인들에게 삼학소주의 향수를 자극해 사기극을 벌인 일당이 붙잡혔다.

근로자 기계에 끼어 숨져
지난 28일 오후 5시20분께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공단 내 한 부품생산업체에서 박모(45)씨가 기계에 끼어 숨져 있는 것을 동료 강모(32)씨가 발견, 119구급대에 신고했다.
강씨는 경찰에서 “신을 소리를 듣고 앞에서 작업하던 박씨를 돌아보니 기계에 갑자기 끼어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강씨와 회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중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인터넷서 필로폰 구입 투약 2명 검거
전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 29일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입한 필로폰을 사들인 후 지내던 후배에게 건네고 함께 투약한 권모(48)씨 등 2명을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2010년 말 인터넷 사이트에서 필로폰 0.1g을 30만원에 구입해 지난 2011년 5월께 대전시 한 모텔에서 주사기로 투약하거나 커피에 희석해 마셨으며, 사업상 알고 지내던 후배 김씨에게 나머지 필로폰을 권유하게 한 혐의다.
경찰은 권씨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필로폰을 구입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마약 판매 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경찰, 박은정 검사 조사 여부 검토
“나경원 남편 기소 청탁 양심선언”
경찰청은 전남 방승민 팟캐스트 라디오 ‘나는 품사다(나름수)’에서 “인연 깊게도 관사로부터 나 후보를 비방한 누리꾼을 기소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는 기사를 보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남뉴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주)호남랜드
태양광발전소 건물 (지붕, 옥상) 임대 구합
(1,500평)이상 임대조건
12년 사용후 건물주에게 기부
임대료 별도지급
사업성 10,000㎡(3,000평)기준
년1억원 순수익
무안읍 휴게소
무안읍 입구 휴게소 대지 4,666㎡(1,412평), 연면적1,130㎡(342평), 식당, 매점, 현재생업중, 매대가 9억원.
Tel: 대표.062-233-2222 직통062-373-3939, HP: 010-3616-8698

부동산경매,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부동산경매전문가(실전)과정」
1학기(15주) 수강예약 2012년 2월 25일까지 마감
물건중심의 실전교육만 50명 □ 상담 및 서류접수 236-3400